

매달 10만원 주택보조금, 100만 가구 받는다



정부가 빠르면 내년부터 중위소득 40%(154만원) 이하 저소득층에게 월 평균 10만원씩을 주택바우처로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연 1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의원실은 이번 주 중 주택바우처 시행 근거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 급여체제로 개편하고 기초 생활수급자에게 매달 지급되던 '주거급여'를 '주택바우처'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바

우처 지급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주거급여는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월 소득 127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중위소득 40%(154만원) 이하인 가구인 경우 주택 바우처를 지급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 바우처 지급 대상자가 현재 72만 가구 수

준에서 100만 가구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바우처 지급 방식도 변경된다. 현재 세입자는 전액 현금으로 월세를 지원하고 주택 보유자는 70%는 현금, 30%는 주택 수선 비용으로 비용을 지급해 왔다.

앞으로는 세입자는 기존과 같이 전액 현금으로, 주택 보유자는

주택 개보수를 위한 유지·수선비 위주(전체 70% 이상) 바우처가 지급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주거 보조비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또 주택 바우처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바탕으로 소득·거주형태·임대료 부담수준·주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별로 차등 지급된다.

이밖에 월세를 내지 않는 전세 가구는 보조금을 세입자에게 직접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보조금을 타용도로 사용해 임대료를 연체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현재 임의규정인 주거비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만 하는 강행 규정으로 바뀌 저소득층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입차료는 내년 10월 1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과 함께 이달 중 주택 바우처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을 거쳐 예정이다.

무협, 중국 산둥성서

대규모 전시상담회 개최

한국무역협회(회장 한덕수)는 국내 유망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산둥성(山東省)의 성도(省都)인 제남시에서 12, 13일 양일간 "2013 산둥 한국상품 전시상담회"를 개최한다.

동 전시상담회는 한국무역협회가 대중(對中)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유망 중소기업을 엄선하여 중국 바이어와의 1:1 비즈니스 상담을 주선하고 현지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국상품을 홍보하는 한국상품 전문 전시상담회이다. 이번 상담회에는 한국에서 40개사, 산둥성 진출 한국기업 150여개사 등 약 200개사(식품·음료·주류 48개사, 주방·생활잡화 40개사, 의료·건강·미용 28개사, 전기전자 6개사 등)가 참가한다.

특히 이번 전시상담회에는 초고주파건조기, 로봇청소기 등 첨단 제품부터 멀티유아용 비데 등 아이디어 상품, 한류요소가 가미된 미용·화장품, 홍삼·김자반 등 식품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어 활발한 무역 상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사장내에 마련된 '한국주제관'에서는 제기차기, 투호 등 한국 전통놀이와 한복입기 체험 등을 통해 다양한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케이팝(k-pop)·한국 드라마·한국 영화를 방영하는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이루어진다.

한국무역협회 김무한 전무이사는 "작년에 한중수교 20주년을 기념하여, 중국 산둥성 정부와 공동으로 제1회 전시상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며, "올해는 한중간 새로운 20년의 역사를 쓰는 첫 해인만큼 이번 행사가 국내업체의 대중(對中) 판로 개척에 일조하고 한국과 산둥성, 나아가 한국과 중국의 경제교류를 한 단계 더 격상시키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2일 오후에 열리는 개막식에는 김무한 무협 전무이사를 비롯해 황승현 駐청도총영사, 천저우 중국 상무부 아주사 사장, 시아경(夏耕) 산둥성 부성장 등 양국의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사우나 불가마서 사망하면 보험금 지급해야

건강한 사람이 술을 마시고 사우나 불가마에서 잠자다 사망하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같은 민원 신청에 대해 보험금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10일 결정했다.

평소 건강한 화물차 운전자인 A씨는 2010년 5월 저녁 늦게 술을 마시고 인천시의 한 사우나 불가마에서 잠을 자다가 다음날 오전 사망한 채 종업원에 의해 발견됐다.

유족은 부검을 원하지 않고 타살 혐의도 없어 경찰에서는 '불가마의 높은 온도에 의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A씨에게 상

해 사고로 볼만한 외상이 없고 사망원인도 불분명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분쟁조정위는 건강한 사람도 고온의 사우나 불가마에서 장시간 수면을 취할 경우 사망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보험사가 의학적으로 사망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상해 원인에 대해 구체적인 증빙이 없더라도 사고 개연성이 충분하다면 상해사고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사례"라고 말했다.

/종합

中 럭셔리카 '紅旗' 시동

현대차보다 비싸..."벤츠·BMW와 경쟁"



중국 이치(一汽)자동차 그룹은 지난달 30일 베이징에서 최고급 승용차인 홍치(紅旗) H7을 팔기 시작했다. '홍치'는 이치 자동차 그룹이 만드는 자동차 중 가장 좋은 브랜드다. 가격이 4만9000달러(약 5500만원)에 달한다. 웬만한 한국 고급세단보다 비싸다. 대신 외국산 차처럼 운전석에 마사지 시트를 올리

고, 유명 오디오 브랜드인 보스의 스피커를 사용하는 등 가격에 걸맞는 사양을 갖추려고 했다. 타겟도 고위 공무원들과 부유한 사업가로 잡았다. 이들은 지금까지 주로 아우디나 벤츠, BMW 등 독일산 차를 선호하던 소비층이다. 다양한 기능과 높은 사양으로 고급차 시장에서 독일 차들과 어깨를 견줄겠다는 얘기다.

中, 신용 억제에 성장 위협

중국 정부가 급증하는 신용을 억제하는 가운데, 경제 성장률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인민은행에 따르면 중국의 5월 사회용자 총액은 1조1900억위안을 기록했다.

전달 규모에서 33% 정도 감소한 수준으로 2달 연속 감소했다. 사회용자 총액에는 은행과 신탁, 회사채, 무역 신용, 은행 간 대출, 개인 대출 등이 모두 포함된다.

신규 은행 대출 규모도 두 달 연속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2분기(4-6월)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할 것이라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출이 감소하면 기업들의 경제 활동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중국의 5월 산업생산은 예상보다 부진했다. 산업생산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전력 생산의 경우 5월 증가율이 4월보다 둔해졌다.

이동통신 가입비 8월부터 40% 인하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최문기 장관과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가 만난 자리에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동전화 가입비를 8월 중 40% 인하하고, 2015년까지 이를 단계적으로 낮춰 최종적으로 폐지하는 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석재 KT 회장,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통신 3사 1분기 마케팅비 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50% 증가한 것은 염려되는 부분"이라며 "마케팅 경쟁을 줄이고 여기에 사용되는 자원을 네트워크 고도화와 기술 개발 등

투자로 돌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통신 3사 CEO들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역할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방안을 밝히면서 통신 분야 대기업들이 힘을 합쳐 대·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다.

현재 KT는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를 활용해 생명공학과 의료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SK텔레콤은 T행복창업지원센터를 통해 맞춤형 창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LG유플러스는 지능형 조명제어 솔루션처럼 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OECD "美·日 주도로 선진국 경제 회복 국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0일 미국과 일본의 경기 회복에 힘입어 선진국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OECD는 이날 33개 회원국의 4월 경기선행지수(CLI)가 100.6으로 전달의 100.5보다 나아졌다고 밝혔다.

미국의 CLI는 101.0로 전달과

같은 수준이었으며, 일본은 일본은행의 강력한 양적완화 정책으로 3월 100.9에서 4월 101.1로 소폭 상승했다.

OECD의 CLI는 100을 기준으

로 100보다 높으면 경제가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OECD는 "선진국 가운데 성장세가 탄탄한 국가는 미국과 일본 정도"라고 진단했다.

한민족음악동호회 회원 모집

한민족음악동호회 소개

한민족음악동호회는 한중문화예술발전과 교류활성화, 문화예술을 통한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한중국동포들로 무어진 봉사단체로서 중국동포 문화예술인재를 발굴하고 문화예술봉사를 통하여 한중 전통문화를 알리고 보급하면서 내국인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하고자 하는 문화예술봉사단체입니다.

한민족음악동호회는 영등포구 문화예술동호회, 서울시 "재능나눔봉사단"으로 선발된 봉사단체임

모집인원: 무용, 노래, 악기연주, 만담 등 문화예술에 관심과 재능이 있는 동포

가입문의 : ☎ (02) 2637-0814, H P : 010-6866-0815

삼성골프클럽 연습생 모집



골프에 관심있는 남, 여 모두 신청 가능
티칭프로에 의한 친절하고 철저한 1:1
개인레슨, 레슨비용 월/15만
레슨 상담전화 : 010-3068-1872

정규회원 골프장 이용료

1개월/200,000원, 3개월/550,000원
6개월/1,050,000원, 12개월/1,900,000원

주간회원 골프장 이용료:

골프장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3가68번지(2호선 문래역 3번출구)

1개월/165,000원, 3개월/470,000원, 6개월/900,000원, 12개월/1,700,000원

오전8시부터-오후16시까지체크-인. (17시20분 종료)

락카이용 : 3개월/30.000원, 6개월/60.000원, 12개월/100.000원